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「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」 주요내용
글로벌 선박 MRO 시장 동향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「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」 주요내용	1
글로벌 선박 MRO 시장 동향	3

국제금융시장	6
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9
--------------------	-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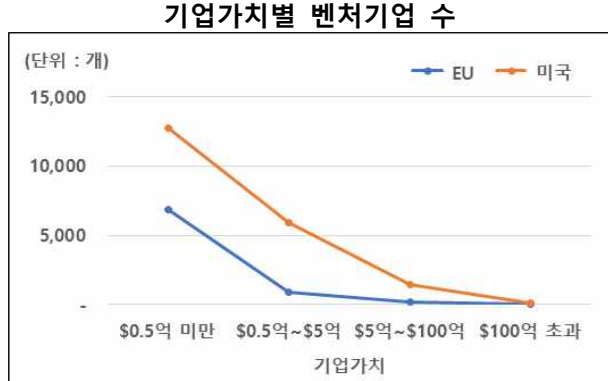
「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」 주요내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 덕 겸 (deokarete@kdb.co.kr)
 권 희 정 (kh2j1029@gmail.co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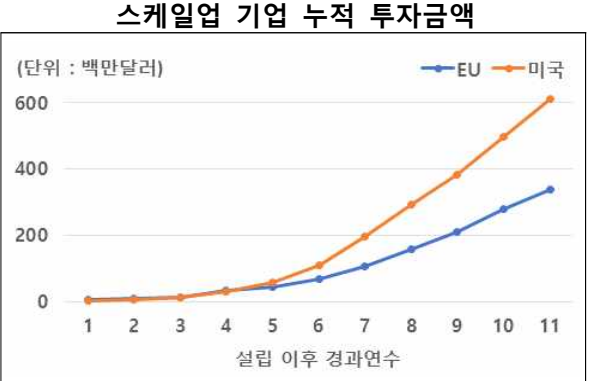
- ◆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혁신기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스케일업 자금지원 및 유니콘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「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」 발표
- ◆ 동 전략은 ①혁신친화적 규제, ②금융지원, ③시장진입 및 확산 지원, ④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, ⑤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

□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딥테크 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술 기업 육성을 목표로 '25.5월 「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」을 발표

- EU 및 회원국의 육성 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, EU 내 파편화된 규제와 혁신 기술기업의 VC 자금조달 제약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
 - EIF, Invest EU 펀드 등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EU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*
 - * EU 벤처 투자 규모는 '16년 133억달러에서 '24년 41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, 기업가치 0.5억달러 미만 스타트업 수는 미국의 50%를 상회
 - 다만,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에 의한 EU 시장에서의 성장 제한*과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** 부족 등은 EU 벤처생태계의 한계
 - * 혁신 기술 스타트업이 EU 역내 다른 회원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, 본국과 상이한 규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 존재
 - ** EU, 美 스케일업 기업(기업가치 5억~100억달러) 간 자금조달 격차는 기업 설립연차가 늘어날수록 확대
-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을 딥테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동 전략을 수립



자료 : EIB(2024)



자료 : EIB(2024)

□ ①혁신친화적 규제, ②금융지원, ③시장진입 및 확산 지원, ④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, ⑤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

- (혁신친화적 규제)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EU 내 법률 규제 단일화 등을 추진할 예정
 - 과산법, 노동법, 세법 등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EU 내 단일한 규칙을 제공하는 'European 28th regime' 제안 예정('26.1Q)
- (금융지원) 혁신기술 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을 위해 Scaleup Europe Fund 조성, 지식재산(IP) 금융 프레임워크 개발 등 추진
 - 유럽기술주권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딥테크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Scaleup Europe Fund*를 출시('26년)
 - * AI, 양자기술, 바이오테크 등 전략적 분야의 딥테크 스케일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로, 민간·공공재원을 통해 약 100억유로(예상) 규모로 조성할 예정
 -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지식재산(IP) 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IP 금융 프레임워크 개발 예정('27.2Q)
- (시장진입 및 확산 지원)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혁신 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장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
 - 연구성과 기반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'Lab to Unicorn 이니셔티브'* 운영('26년)
 - * 학술기관 및 연구자가 IP 상업화 및 스피노프 기업 설립 시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싱, 수익배분 방식, 지분참여 구조 등에 관한 청사진 마련 등
 -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제품의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EU 공공조달 지침 개정*, 유럽혁신법 상 혁신조달 투자총액 확대 등 검토
 - *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혁신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과도한 기술사양 및 재정사항 요구 제한, 혁신친화적 지식재산권(IPR) 도입 등 논의
- (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) EU 인재 유출 방지 및 스타트업 운영 비용 최소화를 위해 EU 비자 개선, 거주 및 취업 허가 간소화 등 절차 마련
 -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원격 근무직원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, 비자정책 개선, 거주 및 취업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'Blue Carpet 이니셔티브' 운영('25~'26년)
- (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) 스타트업 제품의 테스트, 검증, 출시기간을 단축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을 제고
 - 스타트업, 스케일업을 포함한 기업의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접근을 허용하는 입법조치 마련, 스타트업의 AI 컴퓨팅 시설* 접근 재정적 지원('25년)
 - *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컴퓨팅 성능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13개의 시팩토리 신설 예정

글로벌 선박 MRO 시장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박 성 수 (sungsupark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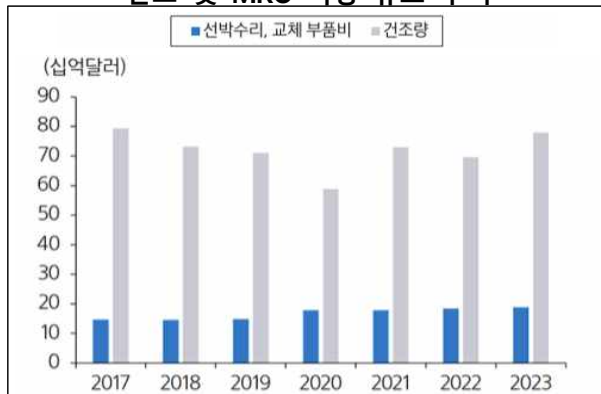
- ◆ 글로벌 선박 MRO 시장은 매년 성장 중이나 한국 조선사들의 점유율은 저조
- ◆ 다만 해양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엔진 개조, FSRU 개조 사업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, 국내 기업들은 기자재 공급망과 정비 기술력 고도화를 통해 MRO 사업 진출 확대가 필요

□ 선박을 보수·정비하는 선박 MRO* 시장 규모는 신조 선박시장의 20~30% 수준으로 '23년 2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, 매년 성장하는 추세

* Maintenance(유지), Repair(보수), Overhaul(정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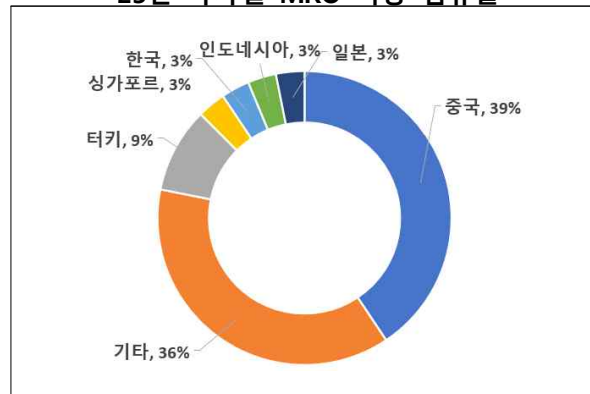
- 선박 MRO는 선박의 성능 유지·향상을 위한 보수·정비 작업을 의미하며,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점검 및 비정기적 개조 작업 등으로 구분
 - 정기 점검은 기관 정비, 선체 수리, 탱크 청소 등 노동력 중심의 작업 진행
-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중국 39%, 터키 9%, 인도네시아 3%, 한국 3%, 일본 3% 순이며 한국의 MRO 시장 점유율은 신조 시장에 비해 낮은 상황*
 - * 국가별 신조시장 점유율('23년) : 중국 59.8%, 한국 20.2%, 일본 13.7%
 - 중국·터키·인도네시아의 조선사들은 한국 대비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보유
- 국내는 오리엔트조선, 삼강에스앤씨, 여수해양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대형 조선사들의 MRO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조
 - 2010년대 이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보유한 수리 도크를 신조용으로 전환하면서 3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MRO 시설이 부족한 상황

신조 및 MRO 시장 규모 추이



자료 : 삼정KPMG('25)

'23년 국가별 MRO 시장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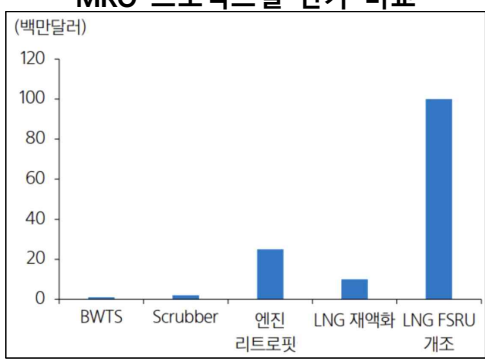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('25)

□ 최근 MRO 시장은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강화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중

- 기존 MRO 산업은 노동력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이었으나, 최근 엔진 개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변모 중
- 구형 벙커C유 엔진을 신규 이중연료 엔진 등으로 교체하는 엔진 리트로핏은 정비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으로, 개조 단가는 정기 점검 비용의 10배 수준*
 - * 선종별 엔진 타입별 가격이 상이하며,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평균 가격을 추정
 -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99%가 벙커C유 추진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, '30년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시 해당 선박들의 엔진 교체가 필요

MRO 프로젝트별 단가 비교



자료 : 삼성증권('25)

선박 수리산업 및 건조업 비교

구분	선박 수리산업	선박 건조업
시설	중소형 생산 설비 높은 도크 회전율	대형 생산 설비 낮은 도크 회전율
기술	현장관리 중심	설계-생산-자재 관리
생산관리	내주 및 직영체계 운항일정에 따른 일정관리	아웃소싱 위주 생산일정 관리 중요
대금회수	작업 종료 시 입금/단기	계약기준 기성 배분/장기
월가구성	자재비 20%/인건비 50%	자재비 60%/인건비 20%
수익률	15~20% 내외	5~15% 내외

자료 : 산업연구원, 삼성KPMG('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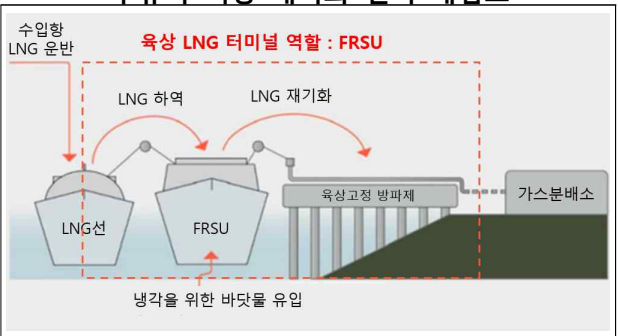
- 엔진 리트로핏 외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 서비스와 부유식 저장 재기화* 설비 (FSRU**)가 주목을 받으면서 MRO 사업의 범위 또한 확장 중
 - * LNG를 끓는점 이하로 낮춰 액체 상태로 보관하다가 필요시 가열하여 기체 상태로 공급
 - **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: 해안에 지속 정박하여 LNG를 공급하는 해양플랜트로, 육상 LNG 터미널 대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가능한 것이 특징
 -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 서비스는 선박의 엔진 효율 향상을 위한 AI 제어 기술로, 이를 통해 연비 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 가능
 - FSRU는 최근 증가한 LNG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중고 LNG선 개조를 통해 생산하므로 MRO 사업 중 개조 단가가 가장 높은 사업

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



자료 : 현대중공업('25)

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개념도



자료 : Balkan Insight 참고하여 재작성('25)

□ 국내 조선사는 향후 FSRU 개조, 엔진 리트로핏 등 수익성이 높은 MRO 사업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

- FSRU 개조, 엔진 리트로핏 사업의 경우 관련 기자재 공급망 및 정비 기술력이 중요하여 국내 조선사들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
-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해외 투자 및 시설 확장을 통해 해외 MRO 사업의 수주 확보 등 M/S를 높이기 위한 계획 추진 중
 - 한화오션은 엔진 제작 및 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'HSD엔진'을 인수했으며, 추가적으로 해외 MRO 사업에 특화된 호주의 '오스탈 조선소*' 인수 협상 중
 - * 군함 사업 외에도 민간 선박 및 석유/가스 해양플랜트 관련 MRO 사업 또한 영위 중
 -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리트로핏 등 분야에 특화된 'HD현대마린솔루션' 상장을 통해 선박 MRO 분야 확대

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MRO 관련 사례

구분	주요 사례
HD현대	- '24년 글로벌 터빈업체 'GE에어로스페이스'와 MRO 사업을 위한 MOU 체결 - '24년 기존 MRO 사업부를 분리하여 'HD현대마린솔루션'을 상장
한화오션	- '23년 'HSD엔진'을 인수하면서 엔진 제작 및 수리 능력 확보 - '23년 '한화파워시스템'이 한화오션의 MRO 사업을 인수 - '24년 미국의 '필리 조선소' 인수, '25년 호주의 '오스탈 조선소' 인수 추진 중
삼성중공업	- '24년 선박 AM 사업 확장을 위해 'MRO사업부TF' 출범 - '25년 노후 LNG운반선 개조(LNG FSRU) 사업 진출을 검토 중

자료 : HD현대, 한화오션, 삼성중공업, 삼성KPMG('25)

- 중소형 조선사 또한 중소형 선박의 엔진 리트로핏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 투자 및 수주 실적 확보가 중요
 - 대형 조선사들의 경우 사업영역을 대형 선박의 MRO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국제금융시장 6월 동향 및 7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심한용 (hyshim@kdb.co.kr)
 박지혜 (jh5702@kdb.co.kr)

- ◆ (환율) 6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국내 증시 약진 등으로 하락, 7월은 통상환경 불안정 지속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세 등이 상승 폭을 제한
- ◆ (금리) 6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하락하였고 유로존은 완만히 상승, 7월 주요국 금리는 트럼프의 불확실성, 미국채 발행 확대 예상 속에 상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
- ◆ (주가) 6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통상환경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고 유로존은 하락, 7월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발언 등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

□ 6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과 日 BOJ는 연속 기준금리 동결, 유로존은 재차 기준금리 25bp 인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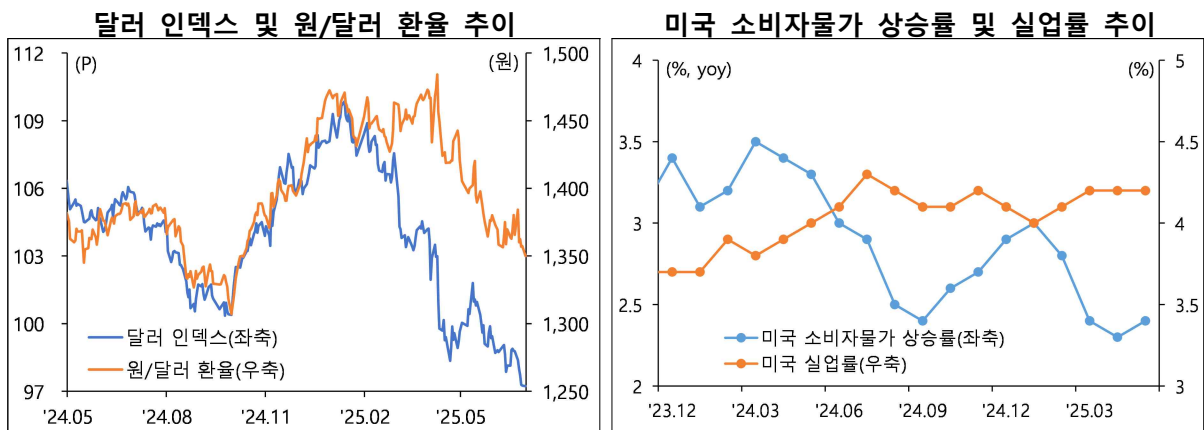
- 美 연준은 FOMC(17~18일)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4.25~4.50%)
 -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시각 아래 기준금리 동결,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*는 하향, 실업률과 물가 전망치*는 상향 조정
 - * '25년 美 성장률/물가상승률/실업률 전망치('25.3월 → 6월, %) : 1.7/2.7/4.4 → 1.4/3.0/4.5
 - 점도표상 '25년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(상단 4.0%)은 기존 수준을 유지, 파월 의장은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하 재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
- BOJ는 금융정책회의(16~17일)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단기금리 0.50%)
 -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과 중동 긴장 등의 리스크 요인 속에 식료품 가격 상승세 완화 등 물가상승률* 오름세 둔화 흐름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
 - *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4.0('25.1월) → 3.7(2월) → 3.6(3월) → 3.6(4월) → 3.5(5월)
 -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'26년 4월부터 분기별 국채 매입액을 감액(4천 억엔 → 2천억엔),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재개는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고 발언
-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(5일)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 (수신금리 2.25% → 2.00%)
 - 물가상승률*의 2% 목표 근접과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7회 연속 정책금리 인하, 에너지가격 하락과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성장률·물가 전망치**는 하향 조정
 - 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, yoy) : 2.5('25.1월) → 2.3(2월) → 2.2(3월) → 2.2(4월) → 1.9(5월)
 - ** ECB 성장률/물가상승률 전망치('25.3월→6월, %) : ('25년)0.9/2.3 → 0.9/2.0, ('26년)1.2/1.9 → 1.1/1.6
 -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정책금리가 향후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금리인하의 일시 중단을 시사

□ '25.7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FOMC(29~30일) : 일부 연준 인사들의 관세發 인플레이션* 우려가 예상보다 낮다는 의견에도,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*이 아직 견고하다고 언급하는 등 신중론 속에 기준금리 동결 예상, 금융시장**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
 - *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/비농업고용(% , yoy/만명) : 2.4/12.0('25.3월) → 2.3/14.7(4월) → 2.4/13.9(5월)
 - *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80.9%('25.7.1일)
- 한국, 금통위(10일) : 물가상승률*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,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불안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원/달러 환율, 가계부채** 증가세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2('25.1월) → 2.0(2월) → 2.1(3월) → 2.1(4월) → 1.9(5월) → 2.2(6월)
 - ** 가계부채 증가율(% , yoy) : 2.0('24.12월) → △0.9('25.1월) → 4.2(2월) → 0.7(3월) → 5.3(4월) → 6.0(5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6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국내 증시 약진 등으로 하락, 7월은 통상환경 불안정 지속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
 - 6월 원/달러 환율은 트럼프發 불확실성에 의한 달러 약세 가운데 무역수지* 흑자 지속 등 양호한 달러화 수급, 국내 주식시장 약진** 등에 따른 원화 강세로 하락
 - * 무역수지(억달러) : △18.6('25.1월) → 41.6(2월) → 49.2(3월) → 48.8(4월) → 48.8(4월) → 90.8(6월)
 - ** 코스피지수(P) : 2,556.6('25.4.30일) → 2,697.7(5.30일) → 3,071.1(6.30일)
 - 7월 원/달러 환율은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(7.8일) 종료 등 통상환경 불안정 지속이 상방 요인이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* 등 달러 유입세 등이 상승 폭을 제한
 - *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(억달러) : △17.8('25.1월) → 17.3(2월) → 36.7(3월) → △17.0(4월) → 92.9(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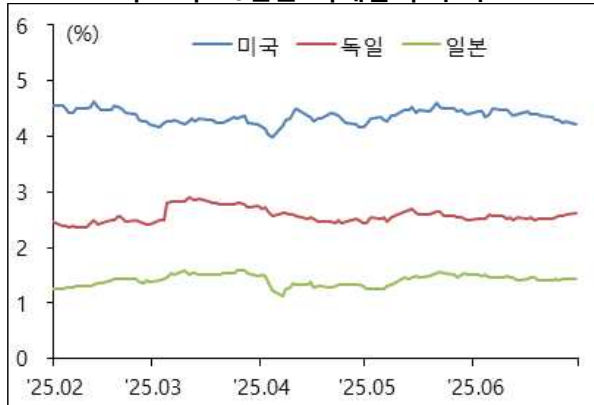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5월말	'25.6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380.1	1,350.0	△2.2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99.44	97.23	△2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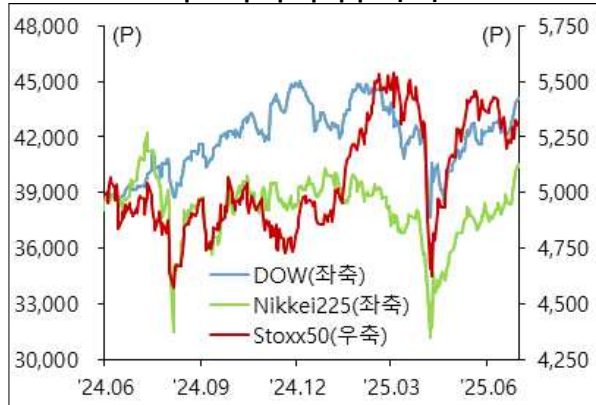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6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하락하였고 유로존은 완만히 상승, 7월 주요국 금리는 트럼프發 불확실성, 미국채 발행 확대 예상 속에 상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
 - 6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* 완화에 따른 국채 수요 확대 전망 속에 하락, 일본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BOJ 금리인상 기대 후퇴 등으로 하락, 유로존은 ECB의 금리인하 결정에도 독일** 국방비 증액 결정 등으로 상승
 - * 美 연준은 25일 대형 은행들의 자산 규모 대비 자본금 비율인 보완적 레버리지비율(SLR) 하향을 발표하여 동 은행들의 미국채 투자 여력 제고
 - ** 獨 재무부는 24일 GDP대비 국방비 비율 증액 ('25년 2.4% → '29년 3.5%) 계획을 내각회의에 제출
 - 7월 주요국 금리는 트럼프發 정책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감세 법안*의 연방의회 통과와 부채 한도 상향(5조달러 증액)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채 발행량 증가 예상 등으로 상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
 - *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트럼프 1기 당시의 감세 조치 연장, 팀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
- (주가) 6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상승하였고 유로존은 하락, 7월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발언 등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
 - 6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미·중 무역협정 서명 등에 따른 통상환경 개선 기대 속에 상승한 반면, 유로존은 역대 금리인하 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
 - 7월 주요국 주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발언 (6.29일)*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
 - *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며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언급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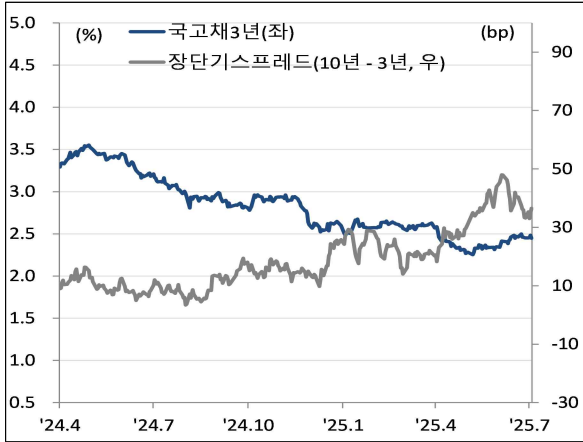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5월말	'25.6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400	4.228	△3.9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500	2.607	+4.3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501	1.432	△4.6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2,270.07	44,094.77	+4.3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366.59	5,303.24	△1.2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3,7965.1	40,487.39	+6.6%

자료 : Bloomberg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 리 국고채3년 2.449% (3.4bp ↓), 신용스프레드 12.7bp (1.8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359.4원 (4.4원 ↓), 엔/달러 144.49엔 (0.26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3,038.3pt (3.11% ↑), 코스닥지수 774.0pt (0.42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72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